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19년 12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축일 - 2020년 4월 19일

“나는 내 자비의 축일에 여러가지 축복을 세상에 베풀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내 ‘빛의 축복’과 내 ‘계시된 축복’을 내릴 것이다.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품고 성지에 참석하는 이들은 이 축복들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날 성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천사를 성지로 보내 내 은총의 일부를 받아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은총이 인류에게 베풀어진 적이 일찍이 없으며, 아마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인생을 바꿀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한 인류의 응답에 달려 있다.” (하느님 아버지 - 2020년 1월 2일)

4월 18일 (토) 기도 모임

저녁 7:00: 기도 모임 - 기도회관 (United Hearts Chapel)

밤 11:30: 행렬 및 자정 기도 모임과 천상의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발현 없음)

4월 19일 (일) 기도 모임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오후 2:30: 행렬 및 오후 3시 기도 모임, 약속하신 발현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빛의 축복, 계시된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 2019년 12월 1일 - 대림 제 1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위대한 크리스마스 축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이것은 세상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막아준

다. 크리스마스를 물질만능주의를 기념하는 시기로 보는 이 세상에 너희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의 기도가 내 아들의 탄생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 노력이 필요하다. 내 부름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사탄이 세상의 마

음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모든 마음 하나하나를 다 좇는다. 사탄은 정치와 엔터테인먼트, 패션과 뉴스 매체 등에 존재한다. 오늘날 영혼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진 나머지 살인과 자살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내 성심은 내내 그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열려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내 남은 신자들인 너희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서 내 무기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충분히 시간을 들여 기도 하여라. 내 승리는 너희가 사랑으로 내게 기도를 바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19년 12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의 모든 부분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 성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각 영혼이 태내에 형성되기 전부터 그들을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선과 악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각 영혼이 직면한 투쟁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바로 현 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는 선이든 악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논란 가운데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메시지들이 너희를 거룩함과 구원으로 부르기 때문에 사탄은 너희가 이 메시지들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사악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진리에 비추어 악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사악한 암시가 이 메시지들에 대한 너희의 신심을 훼손하려 든다.”

“구원을 향한 너희의 노력의 중요성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 계명과 진리를 지지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2:8-10):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9-10):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19년 12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이 승리에 감싸여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많은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내 진노가 반드시 지상에 내려지고, 내 정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나는 내 남은 신자들을 강화시키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메신저(모린)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노력 안에는 악을 드러내고 너희가 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은총이 들어 있다.”

“이것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이 빛이란 바로 진리다. 내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내 계명의 진리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 지금 이 사악한 시대에서는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이 진실들을 크게 타협하고 있다. 악이 인식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토록 격렬하게 신앙이 공격받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내 남은 신자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신앙의 수호자인 마리아의 보호를 구해야만 한다. 마리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파와 상관 없이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요즘 시대는 충실한 영웅적 행위의 시대다.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로 일치하여라. 나의 영웅적인 남은 신자들로서 일치단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

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19년 12월 4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에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한 악에게 무장해제 당하지 마라. 시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내린 사악한 선택들의 나쁜 열매다.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기 전까지 이 악의 무게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탄의 거짓말에 반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나라(미국)에는 완전히 대립되는 정반대의 사상들이 존재한다. 한쪽 진영은 대중의 바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정치적 야심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반면, 반대 진영은 대중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의 지도자들의 동기를 유심히 살펴보아라. 악이 혼란을 틈타 길을 내려고 시도하는 야심적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 길은 사탄의 거짓말의 나쁜 열매다. 악이 너희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안에서 사는 이들에 대한 인신 공격뿐이다. 너희에게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1-2):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

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19년 12월 5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내가 승리나 패배를 예고하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 대신 나는 경고하고 인도하기 위해 온다. 내 보호 곧, 내 베푸는 은혜는 너희가 진리에 마음을 열 때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너희 마음이 열리면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오류와 사탄의 거짓말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거부하게 된다.”

“진리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들을 입증한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진리는 절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나는 신앙의 전통의 진리 위에 내 남은 신자들을 건설하고 있다. 진리의 영으로 너희 마음을 강화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희망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19년 12월 6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래는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데 달려 있다. 내 계명에 가까이 머무르고 내 계명을 충실히 지켜라. 자기 자신을 내 계명 위에 두는 자는 아무도 신뢰하지 마라. 이런 자는 사탄의 도구다.”

“너희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짓 안에서 사탄이 너희 나라(미국)의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오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현실은, 너희 대통령(트럼프)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가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밝혀주지 않는다면 너희의 안녕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늘 악에서 보호하는, 사랑 가득한 너희의 아버지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2019년 12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세상의 마음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흠뻑 빠져 있다. 이것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사랑은 나(하느님)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물질주의와 과학기술, 불법 약물 사용, 문신과 지나친 보디 피어싱(장신구를 달기 위한 귀, 코 등 신체 부위 뚫기)이라는 악들과 심지어 인간의 지성 자체에 대한 애착으로 옮겨갔다. 성 행위는 거짓 신 그 자체가 되었으며 내가 의도했던 부부 사이의 생명 창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간 생명은 경시되고 있다.”

“나는 구원의 규칙으로서 내 계명을 인류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탄이 내 계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만든 나머지 내 계명은 더 이상 인간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죄는 구원의 장벽으로도, 또 내 계명의 위반으로도 여겨지지 않고 있다.”

“나는 세상의 마음을 다시 내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각 영혼을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여라. 너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라. 너희는 이런 점들에 비추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5: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 2019년 12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내

게 내맡기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신뢰 부족으로 메말라 있다. 신뢰는 언제나 사랑에 기초한다.”

■ 2019년 12월 8일 - 대림 제 2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태초부터 너희 한 명 한 명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너희 어머니의 태내에서 빚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희를 알고 있었다. 또한 너희의 투쟁과 너희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오직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너희의 구원만을 바란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기에 나는 사랑 가득한 마음에서, 너희의 구원은 매 현 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도록 촉구한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현 순간을 잘 활용하여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따라 결정을 내려라. 언제나 의로움을 선택하여라.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너희 각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죄 때문에 이것을 잃음으로써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오늘 나는 꾸짖거나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각자를 안아주기 위해서 왔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19년 12월 9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 내 원죄 없는 잉태를 기념하는 특별한 호의로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매일 내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한 상처들을 경배하여라. 이렇게 하면 세상에 베풀어지는 은총이 더 증가하고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단 하루도 너희가 아빠 하느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하나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현 순간에는 너희 삶 속에 계획하신 하느님의 목적이 있다.”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사랑에 도전하지 마라. 너희의 어머니인 나는 너희가 개인의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을 도

와주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교의의 공식 성명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 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었다.” (교황 비오 9 세의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019년 12월 9일 / 월요일 목주기도 모임 -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해서. (이 메시지는 오늘 하루동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왔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내 명을 따르며, 내 뜻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멀리서 너희에게 온) 내 여정은 단지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 뜻을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오늘밤 내 ‘계시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축복을 받는 이들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Apocalypse)’가 일어날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축복의 은총을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은총은 너희의 남은 인생 동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기만 한다면 모든 이가 똑같은 이점을 받는다.”

“자녀들아, 나는 태초부터 너희를 기다려왔던 은총들을 너희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늘밤 이 성지로 너희를 초대하였다. 이 은총들은 내 ‘계시된 축복’의 날개를 타고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오늘밤 나는 내 ‘계시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된 축복’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 웹사이트 (www.holylovekorean.com)의 ‘주제별 메시지’나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플 때 약을 먹는다. 또한 모든 약이 너희의 회복을 위해 작용하므로 너희는 한 번이라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세상의 마음의 회복에 필요한 것은 바로 너희의 기도다. 세상의 양심이 의로움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너희의 기도가 큰 분심 가운데 바쳐진다면 (분심에

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바치겠다는 너희의 그 의지가 공로가 된다. 분심은 사탄이 너희의 기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라.”

“이 선과 악의 전쟁에서 너희의 최상의 무기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너희의 목주 기도다*. 사람들은 그들 온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견고했다면 그들은 어디서나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나는 내 남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고 거의 인식되지도 않는 적에 대한 공격에서 선봉을 맡아주기를 바란다. 너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 2004년 10월 7일 메시지 참조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19년 12월 12일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몹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성지에 왔던 이들에게 부디 감사의 말을 전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기도 덕분에 마음이 움직여졌다.”

■ 2019년 12월 12일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해 왔다. 세상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느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며 또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후아니또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이교도 세상에 발현하였다.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을 저버렸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이교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 슬프게도, 지금 이 시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아빠 하느님께서 태내에 창조하시는 새 생명은 낙태라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제대 위에서 희생되고 있다. 낙태가 행해질 때마다 하느님의 성심과 인간의 마음 사이의 거리가 더욱 넓어진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할 만큼 거리가 너무 먼 것은 아니다. 세상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비극을 겪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대한 당신의 정당한 지배권을 되찾기만 하시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악한 사상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상들은 의로움의 도전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용인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당신께 대한 신심이 회복되도록 손수 개입하셔야만 할 때가 올 것이다.”

“낙태죄에 대해 보상하는 성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느님의 성심께 보속하여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특히, 사탄이 큰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음을 너희에게 각인시키고자 한다. 너희는 더이상 직함이나 지위가 항상 진리를 대변한다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진리는 언제나 아빠 하느님의 계명과 일치한다. 진리 안에서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불신에 직면할 때 영적인 용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세상의 도덕은 자기 실현이라는 거짓 신을 좇아 질주하고 있다. 오늘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 등 너희의 행실을 의로움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돕기 위해 왔다.”

“이 메시지들과 이 기도 성지는 진리를 지지하며 너희를 진리로 부른다. 털마(망토)에 새겨진 내 성화는 단순하고도 순결한 진리의 열매이며, 너희 모두는 바로 이 진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은 거짓으로 흉내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진실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기쁨이다. 너희가 기도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끔찍한 범죄로 가득찬 낙태 시술 병원을 찾는 등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한다.”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기도 노력과 이 발현에 대한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 하느님과 내 아들 예수님의 권한으로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 후안 디에고 (1474-1548)는 멕시코인으로 1531년 12월,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경계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벽지였던 테페약 언덕에서 네 번에 걸쳐 동정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 2019년 12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

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미국) 정부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하여라. 진실이 드러날 때 많은 이들이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며, 교만한 이들은 겸손하게 낮아질 것이다.”

“악은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더이상 직함이나 허위 안건 뒤에 숨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미국)의 현 시기는 가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매우 중대한 시기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19년 12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크리스마스 축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할 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세속적인 걱정을 없애라. 내 아들의 구유에는 어떠한 세상의 찬사나 장식품 또는 세속적인 걱정도 없었다. 내 아들의 구유는 평범하고 단순했으며, 오직 짙으로만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구유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의 현존, 영적으로 매우 심오한 현존이 천상적 영광으로 구유를 가득 채웠다. 크리스마스날 아침, 너희도 이렇게 내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비어 있는 마음을 내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예수는 내 뜻이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의 힘은 너희 것인데, 그 힘은 너희가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비워 크리스마스날 내 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적합한 안식처로 만들어라. 이 위대한 축일에 오직 예수만이 너희의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만 한다. 그의 현존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지낸다.”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

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19년 12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왜 그렇게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지를 알 것이다. 너희는 그저 지금 너희 나라(미국)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사악한 정치적 야심이 의로움을 공격하고 있으며, 진리가 공격 받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천상의 메시지들을 죽 읽어왔다면 너희는 이 사건들에서 사탄의 지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에 속지 마라. 나 또한 누구 못지 않게 이 사건들에 반대한다. 나를 따라라.”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2019년 12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기적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에게 왔다. 내 아들은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기꺼이 그의 왕좌인 초라한 구유에 자리를 잡았다. 이 빛은 오직 마음이 열린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주류 언론이 원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물질적인 온갖 현란함과 화려함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마구간 안에 있던) 모든 가축들과 성 요셉, 지극히 거룩한 성모에게 둘러싸인 구유 옆에 자리 잡게 하여라. 거룩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빛을 바라보아라. 이 아기 옆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모든 악취도 사라진다. 이 아기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이 아기 옆에 가까이 머물러라. 너희 가운데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너희에 대한 나의 큰 사랑에 마음을 집중하여라. 이 사랑에 기뻐하고, 이 기

적의 빛이 너희 온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여라. 다른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적의 표지가 되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19년 12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축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지금, 세상사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특히 정치는 요즈음 너희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계획된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곧, 내 뜻은 ‘너희 마음의 주의(를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계획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도 지향은 바로 ‘내 뜻이 너희 마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그들은 세상이 여러 방향으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경고조차도 세속적인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참된 지혜는 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지혜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지어내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이성과 해결책으로서의 내 뜻을 인간의 마음속에 가져다 준다. 어떤 천상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서 오직 사탄의 계획만 도와줄 뿐인 인간의 이성을 조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2019년 12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아들의 재림과 너희 자신의 심판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마치 자신의 죄와 나에 대한 의무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영원히 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모든 이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만약 내 아들이 오늘날 재림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중죄 중에 있을 것이며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겠느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란 단어는 요즘 시대에는 불미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내가 나의 남은 신자들을 따로 떼어놓은 이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반드시 나와 내 계명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의 믿지 않는 이들과 운데서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19년 12월 1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영혼이 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기도의 가치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내게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다. 영혼이 자신의 마음을 내게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데 그것은 나에 대한 영혼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다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 2019년 12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날 너희 나라(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나라의 현직 대통령(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의 명성이 공격을 받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추잡한 정치라고 부른다. 이것은 부정한 정치적 야심이 이 일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지만, 정직한 진실을 찾고 일부 사람들의 야심이 너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여라.”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사실이라는 것은 소수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새롭게 짜맞춰지거나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야심에 맞추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너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에 야심(열성)적인 사람이 되어라. 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직책을 맡기지 마라. 너희는 모든 계층과 모든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16:17-18):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 2019년 12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출세라면 너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야심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재검토해 보아라.”

■ 2019년 12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나의 ‘명령하는 뜻(Ordaining Will)’은 세상에서 마땅한 공경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의 명령하는 뜻이도 전을 받으면 나의 ‘허락하는 뜻(Permitting Will)’ 또한 바뀌게 된다. 내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는 자연 재해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극을 초래한다. 인류는 나의 전능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내 능력 위에 둔다. 이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자유의지는 내 권능에서 멀리 있는 자가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나에 대한 불경의 결과로 악이 오류를 드러내고 또 실패하도록 내버려둔다. 내가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지배하려 애쓰는 악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 어떤 노력이든 내 능력이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들 곧, 내 계명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이들 중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이들은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기에 안전하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야심적인 자들은 실패할 것이다. 내 법규들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돌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2:21-2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 2019년 12월 2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마리아의 요셉을 따라 그들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밤은 몹시도 추웠고, 길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던 이 두 나그네 주위의 은은한 불빛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불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로가 마리아와 요셉을 덮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뜻 안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여정이 바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여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정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 뜻 안에서 걷겠다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사람들이나 사건들, 심지어 여정의 온갖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마라. 너희 각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여행하고 있다.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들이나 거짓 신들이 너희를 위한 내 뜻의 길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이라는 실망스러운 상황조차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내 뜻이 이런 초라함(겸손)을 통해서도 빛을 발하였다. 너희가 내 뜻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궁극에 이루어질 너희를 위한 내 최종 계획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늘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희 삶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을 둘 다 똑같이 내 뜻으로 받아들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4-7):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2019년 12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

십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은 역경 속에서, 통치자들의 놀람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선교사업도 이와 똑같지 않느냐? 물론 이 선교사업은 구세주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활성화하고 진리를 지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예수의 탄생이 희망과 사랑과 평화의 사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선교사업 또한 희망과 사랑과 평화의 선교사업이다.”

“요즘 시대에는 증오와 테러를 지지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거짓 신들을 용인하는 잘못된 태도도 존재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점차 너희 주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복음서의 진리를 항상 지지하는 나의 영적 영웅들이 되어야만 한다. 믿지 않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기도와 진리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2:6-8, 15-16):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 2019년 12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크리스마스 축일을 준비하는 데 많은 현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물 교환과 장식, 그리고 행사 등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준비들은 너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너희의 내면으로 돌려 왜 세상이 이 날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한 번 묵상해 보아라. 내 아들의 탄생은 기적적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건이었으며,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의 탄생은 인간과 나의 화해의 시작이었으며, 세상의 마음에 영원토록 영향을 주었다. 초라한 구유 안의 내 아들의 현존은 당대와 오늘날의 지성인들을 자극하였다.”

“구유 안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장엄한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여라. 예수가 너희를 위해 기꺼이 바친 그의 생명이

라는 선물을 기뻐하여라. 구유 위에 모였었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의 현존을 기뻐하는 천사들의 찬미에 합세하여라. 너희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면 어떤 장신구도 너희 마음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날을 경축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19년 12월 24일 -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은 내 아들의 탄생일이다. 나는 요셉이 내 갓난 아들을 위해 준비한 초라한 구유 곁을 함께 지키자고 너희를 초대한다. 비할 데 없는 사랑과 경의로 갓 태어난 왕을 맞이하는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평온함을 주시하여라. 신성한 아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으며, 그 대신 사랑 가득한 눈길로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

“마치 시간이 멈춰 서 버린 듯하다. 고요함마저도 어린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이 보인다. 그때 천상의 합창 소리가 온 주변에서 들려온다. 마치 영원이 지상에, 이 마구간으로 내려온 것 같다. 그곳에 있는 것은 오직 만족감과 경외심뿐이다. 주변 환경조차도 예수가 태어날 때 변화되었다. 어떤 추위도, 악취도, 어둠도 없으며, 가족들마저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경탄스러운 이 날을 너희가 잘 경축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나의 선물로서 이 순간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이 시즌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너희의 모든 행사에 이같은 감정이 깃들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10-14):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2019년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오늘날 최고의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어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 갓난 아들이 너희에게 주기 위해 세상에 왔었던 평화를 기념하여라. 그의 탄생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내 아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맞서 겸손하게 태어났다. 그의 평화의 메시지는 대대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나 지리적 거리도 내 아들의 메시지의 영향을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오늘날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난관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의 믿음을 가장 위대한 선물로, 너희를 영원으로 데려다 줄 선물로 여겨라.”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5:8, 23):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 2019년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 말장난에 넘어간 이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하겠다. 너희 현직 대통령(트럼프)은 결코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의 탄핵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를 반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다 정치다. 너희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 2019년 12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구유에서 소박하게 시작되어 마리아와 요셉의 보살핌 가운데 계속되었다. 나의 삶은 ‘사람의 아들’로 구현되었지만 ‘생명이 된 영원한 말씀’으로 요약된다. 내 아들이 한 모든 행동과 모든 말 하나하나를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 아들과 나는) 언제나 늘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상 삶의 여정이 그러하듯 내 아들 역시도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였다. 내 아들은 자신의 사명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뜻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과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내 뜻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고 또 오늘도 주고 싶은 메시지다. 내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해다오. 이렇게 군

게 다짐하면 너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나에게 청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019년 12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의 세상살이의 시작은 최소한 격변의 나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가정은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금전적으로 동방 박사들의 선물에 의존했던 너무나 길고도 고된 여정이었다. 나는 그 여정에서 그들의 안전을 돌보았다. 그들이 큰 용기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나의 베푸는 은혜에 대한 그들의 신뢰였다.”

“오늘 나는 내 남은 신자들에게 신뢰 안에서 인내할 것을 촉구한다. 신뢰는 모든 용기의 원천이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길 즉, 전통의 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전통은 대대로 모든 세대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런 엄청난 배교와 논란 가운데 전해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내 계명은 신앙 없이 생활하는 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전통은 선과 악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악의 농간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의로움에서 벗어난 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성가정은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자녀들아, 너희 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대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5):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1:13-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 2019년 12월 28일 -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관습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어떤 결심을 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인류에게 말한다. 어느 때든 너희

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심은 내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레위 20: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레위 26:27-28):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하겠다.

■ 2019년 12월 29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너희 눈 앞에 펼쳐지는 이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봉헌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당면한) 문제들은 덜 버거워 보일 것이며, 다른 이들의 부정직함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인데, 내 계명에 대한 존중 또한 결코 이 새로운 방법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내게 봉헌된 이들은 천국에서 거룩한 성모의* 품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나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 즉, 믿는 이들의 마음속의 승리로 이끄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 구원을 향한 내 영원한 부름인 거룩한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에만 전념하여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은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각 영혼의 봉헌에 달려 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6:12-14):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29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대한 충실함은 개인의 거룩함으로 가는 길의 진로를 결정한다.”

■ 2019년 12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 통치권은 지평선에서 지평선에 이른다. 나는 인류가 나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인류와 세상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내 앞에서 책임을 저라. 더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마라. 너희가 내게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폭력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어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쟁을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중지하여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 온 주변 세상으로 그 전쟁이 확산되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재물이나 인기, 사회적 지위 등 세상의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대신 나와 내 계명에 대한 뿌리 깊은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정화되면 너희는 세상에서 내 도구가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1):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 2019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드 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참된 순종을 한다는 이유로 의로움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 2019년 12월 3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지난 일 년 동안 너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보아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내게서 더 멀어지는데 사용하였느냐? 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느냐 아니면 내 계명을 무시하였느냐? 지혜롭게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너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느냐?”

“매 현 순간이 그렇듯 지금 또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너희 마음을 비추도록 허락해야 하는 시간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의 노력으로 내 부성적 성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너희 각자를 위한 나의 뜻은 영원한 기쁨이며 이것은

자아 포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살펴보고 이 부분에서 너희가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It's a Beautiful Life.

LOVE LIFE. Pray for the Unborn.

태아목주 (5단) 확대된 목주알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 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 (5단) - \$29.95 짧은 태아목주 - \$14.95
*표시된 모든 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사

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